

테마칼럼

생명과학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김신희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여름이다. 토요일무렵 주말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휴가라는 이름으로 장기간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긴 여름을 견디게 하는 청량제와 같다.

학생들은 신나는 방학에 들어가고 직장인들에게는 '떠날 것이냐', '집에서 머물 것이냐'는 갈림길에서 즐거운 고민을 한다. 명절의 고향대란을 비껴나 친인척이나 가족들 간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휴가는 나름대로 중차대한 임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맘때가 되면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무대인 인도의 3500m 고지에 있는 라다크의 에메랄드 하늘빛이 떠오른다. 너무 많아 뽕뽕 빠져들어 갈 것 같은 하늘이요, 풍경이었다.

2004년 8월, 광주시민협과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제1기 5·18아카데미 해외연수로 전국의 시민단체 실무자들과 함께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라다크의 공동체 마을을 다녀왔다. '작은 티베트'라고도 불리는 여름의 라다크는 태양은 불같이 뜨거웠지만 겨울에는 온도가 영하 40℃까지 내려가는 웅장하고 척박한 땅이었다. 서부 히말라야 고원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비행기에서 내려 고산지대에 이른 일행들은 숨이 차오르고 울렁거리며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에 시달려야 했다. 고산증이였다. 정도가 가장 심했던 필자는 우리나라의 1950년대에나 어울릴 것 같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며 첫날밤을 겨우 넘겼다.

그 다음날 마을 곳곳을 누비며 그들의 생활상을 눈여겨보았다.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기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하며 긴밀한 가족적 공동체의 삶을 잘 이어가고 있었다.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도 재순환을 시키며 살고 있는 그들은 가난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였다.

나무가 없는 곳이라 야크(고원과 산지에서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가축)의 마른똥을 연료로 사용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비위가 상하기도 했지만

공정여행

만 숲등이에 불이 붙은 듯 잘 타며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익혀내고 있었다. 노인들은 존경받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제 몫을 다 하는 그곳, 가난하지만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던 그들을 잊을 수가 없다.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인들에게 소감을 물으면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들 천지였다고 한다. 해마다 여행 인구는 늘고 있다. 뭔가 특별한 체험을 위해 오지여행도 선호하고 있다. 관광 상품들을 들여다보면 자연 그대로의 삶, 다른 민족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대부분이다.

소수민족의 삶의 터전을 관광지로 만들어 대형호텔과 리조트, 전통문화 쇼, 야생동물과 사진 찍기 등, 인위적인 패키지 상품들을 체험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숲 속 공원에서 소수민족의 전통사냥과 물놀이 소제로 한 쇼, 코끼리, 고래 등의 야생동물의 쇼, 관광객의 체험을 위한 동물 쇼, 동물 트레킹 등등. 잔인하게 사육되고 훈련되는 동물들의 슬픈 이야기

는 가슴 아프다. 삶의 터전을 관광객들에게 내주고 산길

에서 기념품을 팔면서 살아가는 현지인들(새로운 곳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뉘날을 생각하며)의 모습에서 서글픈 미래를 떠오르게 한다. 소수민족들의 고유의 전통이 사라지고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으려면 여행도 가려서 해야 한다. 공정여행, 책임여행, 지속가능한 여행, 착한 여행, 윤리적 여행 등등.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 내용이 환경을 중시하고 관광사업 종사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야생동물과 여행지를 보존하는 여행이라야 한다. 몸은 약간 불편하더라도 여행자의 마음이 편안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행, 화려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행,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지금 그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서있으리라는 생각과 고민을 함께할 때, 우리 모두는 여행의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YWCA사무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서민경제 살리는 전통시장 더 활성화 돼야

광주와 전남지역 전통시장이 되살아난다고 한다. 빈 점포가 줄어들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함께 정경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를 진행하면서 시장에 흥겨운 음악이 흐르고, 축제가 열려 생동감이 넘친다고 한다. 또한 공방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공동체를 형성해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끌고 있다니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광주지역 일부 시장에는 빈점포가 없어 대가자들이 줄을 서고, 고객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는 추세다. 시장 당 하루 평균 고객 수는 지난 2005년 2895명, 2008년 155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267명으로 증가했다.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은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서민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리 매김을 한다는 점에서 반겨야 할 일이다. 전통시장은 또 다양한

불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형마트에 밀려 문을 닫는 점포수가 늘어나는 등 크게 위축돼 왔다.

이러한 성과를 상인회의 활성화 노력과 함께 시설현대화, 문전성시 프로젝트, 온누리상품권 공급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큰 몫을 했다. 광주 무등시장의 경우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를 진행하면서 시장에 흥겨운 음악이 흐르고, 축제가 열려 생동감이 넘친다고 한다. 또한 공방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공동체를 형성해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끌고 있다니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전통시장 부활에 나서야 할 것이다.

폭증하는 신용불량 대학생 이대로 둘 건가

신용불량(금융채무불이행자) 대학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대학의 돈을 고금리로 빌려쓰고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대학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의 등록금 부담에 극심한 취업난, 여기에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라는 말에까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대학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약 4만8000명의 대학생이 대부분 채무부터 800여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인원은 57%, 금액은 40%나 폭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원리금을 갚지 못해 연체로 등록된 대출금은 67억 원에서 118억으로 77.5%가 급증했다.

대학입학 대출 원리금 가운데 일부라도 제때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이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

제로 신용불량 대학생은 지난 2007년 3천785 명에서 지난해 2만6000명으로 3년 사이에 8배나 급증했다.

대학생의 대부분 채무 대출 증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학자금 목적의 대부분 채무 대출이 1년 새 34%나 증가한 것도 전에 신용불량자라는 말에까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대학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대학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회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우선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여기에는 대학 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대학생들이 보다 유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중고칼럼



김재영

탐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생각난다. 어느 랍비가 오후 낮잠을 자고 난 뒤 집 배란다에 나와 기지개를 펴며 바람을 쐬고 있을 때 아래 담벼락에서 두렵두렵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랍비는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가지가 등을 돌담벽에 묻혀서 부부 두 사람이 었었다. 자세히 내려다보니 거지는 남부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추하게 보였다. 랍비는 거지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밥도 먹여 돌려보냈다.

그 다음날 오후에도 랍비가 배란다에 나가 있으니까 또다시 담벼락에서 두렵두렵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어찌보다 더 큰 소리

둘 이상 모이면 사랑하자

였다. 거지들이 와서 돌담벼락에 등을 묻고 있었다. 하나는 남자이고 다른 이는 여자인데 부부처럼 보였다. 둘은 돌담에 등을 묻지르면서 힐금힐금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랍비는 얼른 빗자루를 들고 나가 두 거지를 내쫓고 말았다. 두 거지는 도망치면서 항의하기를 "어제 거지에게는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도 음식도 주었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박대하느냐"고 했다.

이때 랍비는 "어제 거지는 흠이 있어서 때문에 누가 등을 묻지러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집 담벼락에 등을 비웠지만 너희는 부부가 아니냐. 서로 등을 묻지러주면 되지 왜 남의 집 담장에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고 꾸짖었다.

이 이야기에서 가르쳐 주는 교훈은 둘 이상이 모이면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둘 이상이 모이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한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은가!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백성이다. 사랑을 위해 부를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란 내 편에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 아니다. 상대방 입장에 나 자신을 헤아려볼 때 진정한 이해를 나눌 수 있다.

미국의 작가 오헨리가 쓴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 있다. 강도가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가 안방에 잠자고 있던 주인을 깨워 권총으로 위협하였다. "두 손 들어!"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다. 강도는 권총을 더욱 가까이 대면서 "오른손마저 들어!" 주인은 오른손을 들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있었다. 강도는 더 큰 소리로 "오른손 들어!" 이때 강도는 '제기랄

나도 한쪽 팔에 신경통이 있어서 직장도 못 구하고 이 짓하고 있는데' 하면서 신경통이 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신경통증상, 치료방법, 필요한 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인은 두려움을 잃고 강도는 흥얼 생각에 잊은 채 한방을 보내다 새벽 여명에 슬며시 집을 빠져나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강도와 집주인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다 보니 원수가 친구가 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서로 이해하려 하지한다는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립과 갈등이 끊어질 않고 분열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 이해하는 정신을 키워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인간을 벌찍이 바라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겪으시며 믿는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셨다. 이해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분출되고 있는 세대간, 노사간, 계층간, 지역간, 나아가서 남북간의 갈등도 능히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신안교회 담임목사>

기고



김운곤

청소년기는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발달하는 과정으로 급격한 생물학적·인지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문제행동을 나타내거나 증가시키기도 한다. 특히 자살은 어떤 문제행동보다 심각하며 부정적인 결과가 크다.

청소년들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쉽게 좌절하고 고��스러워하며, 자신

시급한 청소년 전문상담 시스템

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해 성인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자기 파괴적 행동인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청소년의 자살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 청소년 통계'를 보면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자살자 수는 15.3명으로, 2008년 13.5명보다 늘었다. 10년 전(10.1명)과 비교하면 빠른 증가 추세다.

청소년 사망원인은 1999년까지만 해도 운수사고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런데 10년 만에 자살이 제1순위로 꼽히고 있을 정도다.

고등학교의 경우 10명 중 7명(69.6%)은 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할 정도이다. 이중 38.6%가 공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정신적 문제가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자살률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군인들의 자살과 충기 난동 행위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미래 세대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인적, 경제적 손실과 함께 미래의 국가경쟁력이나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의 자살은 성인과 달리 충동성이 주요 원인이자, 발달 특성상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충동적, 일시적 해결로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의 충동적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들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사회는 이러한 투자에 인색한 편이다. 고통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을 전문적인 상담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일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병원에 대한 인식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해서 치료하는 곳으로만 인식되어 있다. 때문에 부모는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자녀 치료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청소년들을 마음 놓고 맡겨 상담치료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신설한다면 그렇게 않으면 상담을 주로 하는 정신과 병원의 경우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도 전문 상담가를 배치해서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이공대학 해양경찰과 교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이승열·목포시 옥암동

자생식물 효능 활발한 연구 이뤄졌으면

지천으로 널려 있어 소중함을 몰랐던 자생식물이 농민들에게 새로운 수익을 주는 작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겨우살이, 갈대, 버들가지, 뽕뽕기 등은 질긴 생명력으로 우리 땅 지천에서 자생해 왔다.

최근에는 이들 자생식물이 건강식품이나 약재로 활용될 수 있는 효능이 있어,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

다.

이미 함평에서 전국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창포를 활용해 비누, 샴푸, 보디로션, 입욕제 등의 화장품을 개발하고, 제주에서도 한라유채, 산방나무에서 오일을 추출해 내는 기술로 특허를 내고 화장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경남 통영시도 얼마 전부터 동백에서 추출한 기름을 원료로 일반 화장품과 사위

용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각종 자생식물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상품으로 개발하지는 않았다.

이제 우리 전남북에서도 농촌의 각 기관에서 육종을 연구하고 기술을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계속 찾아내고 연구해 각종 천연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無等鼓

제갈량이 촉나라 군대를 양평관에 주둔시키고 대장군 위연을 시켜 위나라 군대를 공격하게 할 때의 일이다. 주력군을 모두 투입한터라 제갈량이 머물고 있는 성에는 100명의 병사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도 대부분 늙고 병든 군사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위나라의 대도독 사마의가 15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제갈량은 20여명의 군사에게 일반 백성의 옷을 입힌 뒤 성문을 활짝 열고 정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자신은 높은 망루에 올라 한가로운 거문고를 뜯었다. 이를 보고 제갈량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판단한 사마의는 군사를 거두고 물러났다.

제갈량이 거문고를 뜯어 사마의를 물리쳤다는 '탐금주적(彈琴走敵)'의 고사다. 어찌보면 허술한 공성계(空城計)에 불과할 수 있는데 여우같은 사마의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제갈량이라는 브랜드 파워 때문이다. '귀신도 힘을 잘 모사(護土)'라는 이미지 덕분에 뭔가 함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즘 국내에서 브랜드 파워가 강한 사람은 안철수와 박경철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젊은이들이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 1번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강연을 통해 실의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는 젊은이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이 광주를 포함해 전국 순회공연에 나서자 좌석이 매진되고 지상파 방송국의 토론 프로그램에 등장하자 오락 프로그램을 제치고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정치권이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사람 모두 경상도 출신인 점을 감안해 여당은 텃밭을 지키기 위해, 야당은 영남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속보이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 이만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탐금주적(彈琴走敵)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